

■ **탈락**: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.

① **모음 탈락**: 원래 있던 모음이 'ㅏ/ㅑ'로 시작하는 ()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.



- ① 모음 탈락의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. → ()대로 표기하므로 표준발음법에 규정 없음.
- ② 우리말에서는 모음이 연속해서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. 모음이 연속될 경우에는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음 하나가 탈락된다.
- ③ 동음 탈락 때도 탈락하는 쪽은 ()이다. 용언의 어간이 어미 없이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 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간의 'ㅏ/ㅑ'가 탈락된다고 보아야 한다.
- ④ 음운의 탈락에는 자음 탈락도 있다: ' () ' 탈락, ' () ' 탈락
 - ㉠ 날- + -는 → [], 울- + -시- + -고 → [], 등글- + -버니다 → [등글니다]
 - 딸 + -님 → [], 활 + 살 → [화살], 놓- + -아 → [], 많- + -이 → [마니]

1) 'ㅡ' 탈락: 어미 '-아/-어' 앞에서 ()의 'ㅡ'가 탈락함.

ㅡ + ㅏ, ㅑ → ㅏ, ㅑ

㉡ 잠그- + -아 → (), 쓰- + -어 → ()

2) **동음 탈락**: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그 중 하나가 탈락함. 모음 'ㅏ/ㅑ'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'ㅏ/ㅑ'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 중 하나가 탈락함.

ㅏ, ㅑ + ㅏ, ㅑ → ㅏ, ㅑ

㉢ 가- + -아라 → (), 서- + -어라 → ()

② **두음 법칙**: ' () '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.



- ① 두음: 단어의 첫소리.
- ② 두음 법칙이란? 단어의 ()에 올 수 없는 자음에 대한 법칙
- ③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. → ()대로 표기하므로 표준발음법에 규정 없음.
- ④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조건:
 - ① ()인 경우 ㉠ 뉴스, 라디오 → 외래어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 - ② 단어의 첫머리에 쓰인 경우
- ⑤ 단어의 ()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는다.

※ 아래의 문장을 소리 내서 읽어 보자.

어제는 **루각**(樓閣)에 올라 **력사**(歷史)를 되새겨 보았다.
래일(來日)은 무엇을 하며 **로인**(老人)이 오기를 기다릴까?
'녀안'(女人)은 **룡궁**(龍宮)에 사는 그의 **년세**(年歲)를 짐작해 보았다.

☆ 읽기 어려운
단어들의 공통점 찾기!

- ① 모두 (ㄹ ㄴ ㅇ)이다.
- ② (ㅇ ㄷ)에 (,)이 온다.
↳ (語頭)

1) 한자음 '녀, 뇨, 뉴, 니'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' () '이 탈락함.

한자어 첫머리의 '녀, 뇨, 뉴, 니' → 여, 요, 유, 이

㉣ 여자(女子) ➡ 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제10항

2) 한자음 '랴, 려, 레, 료, 류, 리'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' () '이 탈락함.

한자어 첫머리의 '랴, 려, 레, 료, 류, 리' → 야, 여, 예, 요, 유, 이

㉤ 양심(良心) ➡ 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제11항

※ 한자음 '라, 래, 로, 뢰, 루, 르'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' () '이 ' () '으로 ()됨 → 음운의 교체

한자어 첫머리의 '라, 래, 로, 뢰, 루, 르' → 나, 내, 노, 뇌, 누, 느

㉥ 내일(來日) ➡ 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제12항

표준 발음법 제3장 제5절 두음법칙 → 교과서 442쪽 참고

3 우리말 바로 쓰기 (1) 올바른 발음과 표기	상암고등학교	2020년도 국어교실 학습지⑥	반	번호	이름	교사 확인
	1학년					

5분 쪽지 시험

-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의 ()이라고 한다.
- 음운 변동은 일반적으로 ‘(, ,)’(으)로 분류할 수 있다.
- 음절 끝소리 ‘ㄱ, ㄷ, ㅂ’이 ‘ㄴ, ㅁ’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‘()’(이)라고 한다.
-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한다. (O, X)
- 다음 중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는? ()
 ① 국물 ② 받는 ③ 맞는 ④ 밥물 ⑤ 신라
- 다음 중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은? ()
 ① 맏이 ② 빌딩 ③ 마디 ④ 가치 ⑤ 꽃향기
- ‘콧날’의 표준 발음은 [콘날]이다. (O, X)
- 다음 중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? ()
 ① 국밥 ② 덧셈 ③ 담다 ④ 물건 ⑤ 발전
- 음절의 끝에서 겹받침의 자음 중 앞 자음이 탈락하는 것은? ()
 ① 뭇 ② 닭 ③ 굶 ④ 핥다 ⑤ 여덟
- 다음 중 받침의 발음이 다른 하나는? ()
 ① 밖 ② 녀 ③ 묶고 ④ 맑다 ⑤ 부엌
- 두음 법칙은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이지 않았을 때에도 적용된다. (O, X)
- 받침이 ‘ㄷ, ㅌ’인 형태소가 모음 ‘ㅣ’나 반모음 ‘ㅍ’로 시작하는 ()와/과 만나면 [ㅈ, ㅊ]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‘구개음화’라고 한다.
-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‘()’(이)라고 한다.

3 우리말 바로 쓰기 (1) 올바른 발음과 표기	상암고등학교	2020년도 국어교실 학습지⑦	반	번호	이름	교사 확인
	1학년					

③ 자음군 단순화: 음절의 끝에서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.

겹받침 중 앞의 자음이 소리가 남.	ㄱ[]	넋[넉], 뉘[]	ㄴ[]	았고[], 었다[언따]
	ㄷ[]	여덟[여덜], 넓다[]	ㄹ[]	외곬[]
	ㄹ[ㄹ]	홀고[홀꼬], 활다[]	ㅁ[ㅁ]	값[], 앓다[엿 : 따]
뒤의 자음이 소리가 남.	ㄴ[]	닭[닥], 맑다[]	ㅂ[ㅂ]	삼[삼 :], 젊다[]
	ㄷ[]	을다[]		

*CHECK POINT!! 음절의 끝소리 규칙 VS 자음군 단순화: '교체'인가 '탈락'인가?

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대표음으로 바뀌니 () VS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하나만 발음되므로 ()

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

제10항 겹받침 'ㄱ', 'ㄴ', 'ㄷ', 'ㄹ', 'ㄹ', 'ㅁ', 'ㅂ'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], [], []으로 발음한다.

다만, '발-'은 자음 앞에서 []으로 발음하고, '넓-'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[]으로 발음한다.

제11항 겹받침 'ㄴ', 'ㄷ', 'ㄹ'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], [], []으로 발음한다.

다만, 용언의 어간 말음 'ㄴ'은 'ㄱ' 앞에서 []로 발음한다.

■ 첨가: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.

① 반모음 첨가: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 ()가 첨가되는 현상.



① () :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. 'ㅏ', 'ㅑ', 'ㅓ', 'ㅕ', 'ㅗ', 'ㅛ', 'ㅜ', 'ㅠ', 'ㅡ' 따위의 이중 모음에서 나는 'ㅣ(y)', 'ㅜ(w)' 따위이다.

② WHY?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 +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→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반모음 덧붙임.

*CHECK POINT!! 음운의 음가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을 첨가한 발음도 허용됨.

● 피어[피어/피여], 되어[되어/되여] ➡ 표준 발음법 제22항, [붙임]

표준 발음법 제5장 음의 동화

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[어]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, [여]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() [되어/되여] () [피어/피여]

[붙임] ' (,)도 이에 준하여 [이요, 아니요]로 발음함을 허용한다.

② 'ㄴ' 첨가

(1) ㄴ첨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모음 'ㅣ'나 반모음 'ㅚ'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'ㄴ'이 첨가되는 경우

① 송-이불[송니불], 눈-요개[], 색-연필[] ➡ 표준 발음법 제29항



① 합성어 및 파생어, 즉 복합어에서 나타남.

② 'ㄴ'이 첨가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여 복합어뿐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'ㄴ'이 첨가됨.

● 한 일[], 할 일[할릴], 먼 옛날[만넨날], 3연대[삼년대]

③ 'ㄹ' 받침 뒤에 첨가되는 'ㄴ' 음은 [ㄴ]로 발음. WHY? 'ㄴ' 첨가 후 (). ● 물-액물[물ㄴ]

④ 'ㄴ' 첨가가 항상 적용되지는 않음. ● 등-용문[등문], 물-인정[모린정]

⑤ 'ㄴ'이 첨가되는 것과 첨가되지 않는 것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기도 함. ● 금위[금늬/그믐]

(2)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'ㄴ', 'ㅁ'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'ㄴ'으로 발음되는

경우 ● 코+날→[], 이+몸→[] ➡ 표준 발음법 제30항

표준 발음법 제7장 음의 첨가

제29항 () 및 ()에서,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'이, 아, 여, 요, 유'인 경우에는, () 음을 첨가하여 [(, , ,)]로 발음한다.

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.

1. 'ㄱ, ㄷ, ㅂ, ㅅ, ㅈ'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이시옷을 [ㄷ]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. **예** 깃발[기빨/길빨]
2. 사이시옷 뒤에 'ㄴ, ㄹ'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]으로 발음한다. **예** 아랫니[아랜니→아랜니]
3. 사이시옷 뒤에 '이'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[ㄴㄴ]으로 발음한다. **예** 나뭇잎[나문닙→나문닙]

참고 자료 | 사이시옷 현상

합성 명사에서,

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(=모음, ㄴ, ㄹ, ㅁ, ㅇ)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(=ㄱ, ㄷ, ㅂ, ㅅ, ㅈ)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.

→ 'ㄷ'이 첨가된 경우 **예** 냇가[내 : 까/넌 : 까], 산-새[산새](사이시옷 첨가)

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

뒷말이 'ㄱ, ㄴ'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에 'ㄴ' 소리가 하나 더나고,

→ 'ㄴ'이 첨가된 경우 **예** 훗날[훈 : 날→훈 : 날], 뱀머리[뱀머리→뱀머리](사이시옷 첨가→비음화)

모음 'ㅣ'나 반모음 'ㅍ'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에 'ㄴ'이 둘 더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.

→ 'ㄴㄴ'이 첨가된 경우 **예** 예삿일[예 : 산닐→예 : 산닐],

도리깨열[도리깨널→도리깨널](사이시옷 첨가→ㄴ첨가→비음화)

■ 축약: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.

① **거센소리되기:** ()과 예사소리 'ㄱ, ㄷ, ㅂ, ㅅ'이 만나 거센소리[ㅋ, ㅌ, ㅍ, ㅊ]로 축약되는 현상.

ㅎ + ㄱ, ㄷ, ㅅ → ㅋ, ㅌ, ㅊ

④ **농고**[노코], **낭지**[나치], **않던** [] **▶ 표준 발음법 제4장 제12항 (순행적 거센소리되기)**

ㄱ, ㄷ, ㅂ, ㅅ + ㅎ → ㅋ, ㅌ, ㅍ, ㅊ

④ **축하** [], **만행**[마텃], **좁히대**[조피대], **꽃히대**[꼬치대] **▶ 표준 발음법 제4장 제12항 [붙임 1] (역행적 거센소리되기)**

(보통) ① 예사소리인 'ㄱ, ㄷ, ㅂ, ㅅ'과 ()이 따로 발음되기 힘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.



② 모음 축약도 있음 ⇒ 음절 축약

⑤ 아이 → 애: 단모음 + 단모음 = ()모음, 가지었다 → 가졌다: 단모음 + 단모음 = ()모음

확인 문제 【2014년 고3 4월 학력평가 A 11번】 다음은 '축약'에 대한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. (가)~(다)의 사례를 <보기>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? ()

음운의 변동 중 '축약'은 자음 간의 축약과 모음 간의 축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. '농고'가 [노코]로 발음되는 **(가) 거센소리되기**는 자음이 축약된 사례이고, '보아'가 '뵤'로 음절이 줄어드는 경우는 모음이 축약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. 그런데 모음의 축약을 용언으로 한정할 경우, **(나) 어간에서만 축약**, 어미에서만 축약, **(다) 어간과 어미의 축약**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'입으셨다'는 선어말어미인 '-시-'와 '-었-'이 '-셨-'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어미에서만 축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<보기> 입학 졸다며 나눴다 띄게 보였다.

	(가)	(나)	(다)
①	졸다며	입학, 띄게	나눴다, 보였다
②	나눴다	입학, 졸다며	띄게, 보였다.
③	입학, 졸다며	띄게	나눴다, 보였다.
④	입학, 졸다며	나눴다, 보였다.	띄게
⑤	입학, 보였다.	졸다며, 띄게	나눴다.

3 우리말 바로 쓰기 (1) 올바른 발음과 표기	상암고등학교	2020년도 국어교실 학습지⑨	반	번호	이름	교사 확인
	1학년					

소단원 15분 평가

01~05 다음을 읽고, 맞으면 o 표시를,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.

- 01** 국어의 음운은 놓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이 발음된다. (o | x)
- 02** 음운 변동의 결과는 언제나 표기에 반영된다. (o | x)
- 03**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말의 정확한 발음뿐만 아니라 바른 표기에도 도움이 된다. (o | x)
- 04** 비음화, 유음화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. (o | x)
- 05** 두음 법칙은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일 때에만 적용된다. (o | x)

06~10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.

- 06**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() (이)라고 한다.
- 07** 받침이 'ㄷ, ㅌ'인 형태소가 모음 'ㅣ'나 반모음 'ㅍ'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각각 [ㅈ, ㅊ]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() (이)라고 한다.
- 08** '입구[입꾸]', '꺼안고[껴안꼬]', '갈등[갈똥]'을 발음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()이다.
- 09** 어떤 모음이 정한 환경에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() (이)라고 하며, 이는 실제 표기에 반영된다.

10 '피어[피어/피여]', '되어[되어/되여]'와 같이 반모음을 ()하여 발음할 수 있다.

11~15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

11 국어 음운 변동의 종류 4가지는 무엇인가?

12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?

13 '식물[싱물]', '능력[능녁]'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인가?

14 '미닫이'의 바른 발음과 발음할 때 적용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인가?

15 거센소리되기에서 예사소리와 만나 거센소리로 발음되게 하는 자음은 무엇인가?

16~20 다음의 각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하시오.

- | | |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6 음운 | • | • ❶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것 |
| 17 교체 | • | • ❷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 |
| 18 탈락 | • | • ❸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 |
| 19 첨가 | • | • ❹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|
| 20 축약 | • | • ❺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는 것 |